

2008. 10. 20 제201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10. 20 제201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뉴욕시의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

문화·디자인

1. '예술가 사회보험' 폐지에 반대 (베를린)
2. 공원묘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베를린)
3. 영화 및 TV 제작사에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 (뉴욕)
4. 티베트 문화 전시 후원 (뉴욕)
5. 장애인이 주인공인 '자유 축제' 개최 (런던)
6. 수상버스 관광 상품화 추진 (상하이)

산업·경제

7. 미래 경제정책의 중심은 생태 경영 (베를린)
8. '구매축제' 통해 내수소비 증진 도모 (상하이)

건강·복지

9.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기·가스 특별 요금 도입 (독일)

목 차

행정·재정

10. '골목길' 전자 데이터 시스템 구축 (북경)

방재·안전

11.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범죄지도 작성 (런던)
12. 지하공간 침수 대책 가이드라인 수립 (도쿄)

도시환경

13. 녹색지붕 설치하면 세금감면 혜택 (뉴욕)
14. 태양열 전지판 설치하면 저리로 비용 용자 (캘리포니아주 버클리市)
15. 환경 살리기 자원봉사는 시청 공무원부터 (런던)
16. 안정된 하수도 사업 통해 수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

도시교통

17.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베를린)
18. '쓰레기봉투 북극곰',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에 앞장서 (뉴욕)
19.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상하이)
20. 무단횡단 단속하는 24시간 '전자 감시경찰' 등장 (상하이)

도시계획·주택

21. '그린 극장' 실행계획 발표 (런던)
22.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프로젝트로 수상 (베를린)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の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

<주요 내용>

- 뉴욕市の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ULURP: 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표준화된 단일 절차임.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는 1975년 개정된 도시헌장 197-c조에 근거해 1976년 도시계획위원회(CPC: City Planning Commission)에서 채택한 제도임.
 - 도시개발에 있어 ‘커뮤니티 도시계획 위원회’(Community Planning Board)의 영향력이 커지고, 시정 전반에 걸친 커뮤니티 참여가 활발해진 1950~60년대의 추세를 반영해 성립됐음.
 - ‘도시지도’(The City Map) 변경, 토지 분할·합병, 지역지구 지정·변경,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허가(Special Permit), 도시계획시설 부지 선정, 시유지 사용(Franchise), 시유지 점용(Revocable Consents), 시유지 내 영업 허가(Concession), 시·주·중앙정부의 법정 주택 및 도시 재개발 계획, 폐기물이나 수변 매립, 시 소유 부동산의 매각·취득 시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는 검토신청 → 접수 → 지역사회 위원회 검토(60일 이내) → 자치구장 검토(30일 이내) → 도시계획위원회 검토(60일 이내) → 시의회 검토(50일 이내) → 시장 검토(5일 이내, 거부권 행사 여부) 순으로 진행됨.
 - 공식 접수 이후의 각 절차는, 검토 주체가 검토를 포기하거나 정해진 시한이 지나면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

- 라도 다음 절차로 이행됨. 검토 주체는 계획안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간주됨.
- 커뮤니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함.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신청하는 제안자는 표준 양식에 따라 검토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식은 웹사이트(home2.nyc.gov/html/dcp/html/luproc/ulurp.shtml)에서 받을 수 있음. 계획안에 따라 필요한 선택적 부가양식과 첨부자료 점검표를 제공함.
 - 검토신청서는 공통양식과 선택적 부가양식, 첨부자료, 보충자료로 구성됨.
 - 검토신청서와는 별도로 신청자는 자신과 주요 경영자 및 소유자, 고급 관리자의 명단과 연락처가 기재된 업무자료를 제출해야 함.
-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요구하는 신청자는 사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납부해야 함.

<해설 및 평가>

- 뉴욕시는 표준화된 통합 토지이용 검토절차를 채택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있음.
 - 커뮤니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검토 과정에서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공개적으로 공청회가 열리도록 공청회 개최 예고방법과 진행방법을 명문화해 계획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검토 과정마다 최장 시한이 명시되어 검토신청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 접수과정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도시계획국과 제안자가 충분히 의사소통하여 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검토절차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검토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임.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뉴욕市는 토지이용 규제를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그 변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는 토지 이용을 느슨하게 규제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행을 보여 왔음.
- 서울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이나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률적인 규제를 보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역동적인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
 -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 관련 사안의 종류나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부서나 검토과정이 달라 혼선이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 신청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직접 부담하므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요식행위로 비판받기도 함.

<벤치마킹 시행방안>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와 각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도시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변화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주요 도시계획·정비·건축 관련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함(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검토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을 보강하고 행정 부서 간 업무 분장과 협업 체계를 조정함.
 -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수반돼야 함.
- 신청자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보다는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고, 시청이나 구청이 이를 시행해 결과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정의 행정절차 이행비용을 별도로 징수해 공정한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함.
 - 징수한 비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 자문 또는 기술적인 검토 용역 수행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벤치마킹 기대효과>

- 도시계획 운용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정당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임.

/김상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urbnplnr@sdi.re.kr)

1. ‘예술가 사회보험’ 폐지에 반대 (베를린)

○ 베를린시는 최근 ‘예술가 사회보험’(Künstlersozialkasse)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독일에서 예술 창작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베를린시는 7000명 이상의 예술가가 예술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도시임.
· 예술가를 위한 사회보호정책적 도구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시는 예술가 보험 유지를 지지함.

- 독일은 1983년부터 예술가의 직업적인 불안정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예술가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해 왔음.

· 이를 통해 미술가, 음악가 등 전업 자유 예술가들과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은 의료보험 및 국가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

· 예술가 보험에 가입하면 전체 보험료의 50%만 예술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술 관련 기업(30%)과 연방정부(20%)가 부담함.

-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전업 예술가가 증가하고 예술가의 보험가입률 또한 증가하면서, 예술 관련 기업의 지불 부담이 커짐.

· 2007년 말 독일 상공회의소는 예술가 보험의 폐지를 요구했고, 이번에 독일연방 경제위원회도 예술가 보험 폐지 또는 기업 부담 축소형 예술가 보험 개정을 언급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15/109233/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독일에서 시행하는 ‘예술가 사회보험 제도’는 예술가의 생계를 보장하고 창작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함.

- 우리나라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불확실함.
- 예술가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세금이 기금으로 투입된다는 점, 보험제도 운용이 창작의 질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점 등이 현재 제도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임.

- 서울시도 현재 다양한 예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보험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결정을 주목해야 할 것임.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공원묘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베를린)

- 베를린시는 독일의 ‘공원묘지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일요일)을 맞아 베를린 시장과 공원묘지 관리인, 종교·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Heerstrasse 공원묘지’에서 공식행사를 열.

- 1924년에 조성된 Heerstrasse 공원묘지는 베를린시의 아름다운 공원묘지 중 하나로, 유명한 인물의 묘가 많이 있음.

- 이날 하루 베를린시 공원묘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림.
- 시민은 장례절차, 지속적인 묘지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음.
- 공원묘지 순례와 역사적 이해, 묘지 문화와 전통에 관한 강연회나 토론회 등 각종 문화행사도 열림.
- 부대행사로 마련된 화려한 색의 풍선 날리기와 꽃 장식 등을 통해 밝은 이미지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묘지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함.

- 공원묘지는 공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계속 도시 밖으로 밀려나고 회피되는 공간임.

·이러한 행사를 통해 공원묘지를 도시 속 삶의 공간이자 중요한 문화공간의 하나로 끌어들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09/nachricht3197.html)

(www.tag-des-friedhofs.de/j_tdf2.html)

3. 영화 및 TV 제작사에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최근 'Made in New York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해,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에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 세금 감면, 마케팅 연계 등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함.

·촬영 분량의 75% 이상을 뉴욕시 5개 자치구(borough)에서 진행할 경우, 뉴욕주 세금의 30%, 뉴욕시 세금의 5%를 돌려줌. 또한 총 제작비의 1%를 뉴욕시에서 추가로 지원함.

·제작사는 각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뉴욕시가 운영하는 NYC TV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해 더 큰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작사는 0.1%의 수익금을 뉴욕 시내의 문화기금으로 기부하게 돼 있어, 호혜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좋은 예임.

·'메이드 인 뉴욕' 할인카드와 로고 사업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익도 기대하며, 실제 NBC와 FOX 같은 방송국이 참여해 큰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더 많이 유치하면 고용증대 효과와 관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뉴욕시에만 9만㎡에 달하는 영상 제작 관련 시설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작 유치와 마케팅 발전이 기대됨.

(www.nyc.gov/html/film/html/incentives/made_ny_incentive.shtml)

4. 티베트 문화 전시 후원 (뉴욕)

○ 뉴욕시 문화국은 뉴욕주 문화협의회와 스테튼 아일랜드 기금과 연계해, 티베트 문화 박물관의 전시를 후원함.

- 티베트와 히말라야 산맥 인근의 문화에 심취해 문화예술품을 수집하고 보존해 온 Jacques Marchais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Jacques Marchais 티베트 예술 박물관'에서 'From Staten Island to Shangri-La: The Collecting Life of Jacques Marchais'라는 주제로 2008년 말까지 계속됨.

·주요 전시품은 Marchais 여사가 생전에 수집했던 티베트의 조형 및 조각, 문서, 고서, 사진 등임.

·이 박물관의 지형적 위치를 살려 뉴욕의 다른 지구와는 다른 스테튼 아일랜드의 현재 모습과 예전 모습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뉴욕주 문화협의회와 뉴욕시 문화국은 대규모 관람시설뿐 아니라 소극장, 소공연장, 소전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는 의지임.

·관내의 여러 소규모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여러 문화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임.

(www.tibetanmuseum.org)

5. 장애인이 주인공인 '자유 축제' 개최 (런던)

○ 2008년 8월 30일 제6회 '자유 축제'(Liberty Festival 2008)가 런던 도심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렸음.

- 장애인이 주인공인 이 축제는 런던의 상징인 트라팔가 광장을 장애인이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장해,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모범사례를 선보임.

·청각장애 예술가가 준비한 예술 작품 전시회를 필두로 전 세계적인 예술가 단체가 참여한 시상식 퍼포먼스, 거리공연, 서커스, 영화 상영, 어린이 작품 전시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열림.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한 공연 운영 서비스도 다채롭게 준비함.

·장애인 안내 훈련을 받은 진행요원 배치, 장애 형태별로 맞춤 제작한 프로그램 팸플릿 제작, 휠체어 대여 등 세심하고 전문적인 준비를 갖추.

(www.london.gov.uk/mayor/equalities/liberty/index.jsp)

6. 수상버스 관광 상품화 추진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 상하이 세계 엑스포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수상교통 수단을 마련하기로 함.

- 약 70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엑스포 행사기간에 23척의 호화유람선을 포함해 총 45척의 수상버스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강 위에서 엑스포 행사장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공하고자 함.

·5~10%의 관람객이 수상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행사장 진입로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상하이市는 도시를 관통하는 황포강 9개소에 추가로 선착장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 후 2010년 초 시범 운행할 계획임.

·엑스포 행사 종료 후에는 상하이 황포강 관광명물로 발전시킬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9/18/content_14424107.htm)

7. 미래 경제정책의 중심은 생태 경영 (베를린)

○ 베를린 시의회는 2008년 9월 23일 경제·기술·여성부가 제출한 ‘생태 경영’에 관한 보고를 결의함. 이것은 베를린시의 미래 경제정책의 중심이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시사함.

- 생태 경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부담을 축소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은 수자원, 기후, 자연보호임. 환경부담 축소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 아닌 市와 공공기관에 의지함.
- ‘기후보호와 기후보호 활동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베를린 에너지 펀드 비용으로 계속 진행됨. 베를린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실현될 때까지 투자함.
- 베를린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회의소, 베를린 기업협회가 환경 제휴관계를 형성할 계획임. 이를 통해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관료주의적 태도를 버려 정치와 경제 관계에서 환경 파트너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순환을 강화하고, 에너지에 경제적·생태적으로 관계하는 분야가 효율성과 가치 창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수자원공사, 도시정화기업, 교통공사, 주택기업과 함께 환경·기후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주력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23/109946/index.html)

한줄 뉴스

<상하이>

- 2009년 말까지 2500ha 녹지대를 정비하고 20만㎡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시 녹화산업 추진
- 만보걷기 운동 캠페인 통해 시민 생활운동 정착 추진
- 건강의료 문의전화 ‘12320’을 24시간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8. '구매축제' 통해 내수소비 증진 도모 (상하이)

- 상하이市는 내수소비 증진을 위해 2008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구매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함.
 - 상하이 전역의 1000개에 달하는 상업기관과 1만 4000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함.
 -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매축제가 시작되자 200개의 중대형 소매업과 서비스업, 3800개의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해 동기대비 95.5%의 성장세를 보임.
 - 개인 소비가 가장 많은 춘절이나 노동절 연휴기간보다 큰 폭의 성장세임.
 - 주로 가전제품이나 의류, 화장품, 아동용품 등의 매출이 3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형 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의 매출도 20% 이상 증가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296055.html)

건강 · 복지

9.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기·가스 특별 요금 도입 (독일)

- 2008년 9월 19일의 독일 연방 소비자정책 장관회의에서,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부의 요청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기 및 가스 특별요금 도입을 논의함.
 - 독일의 전기와 가스는 대부분 민간 기업이 공급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소비자정책 장관회의에서 이들 기업에 저소득 가구용 저렴한 전기·가스 요금을 요구하기로 함.

·사용료 체납으로 전기와 가스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기·가스 공급 중단 약관 폐지도 추진하기로 함.

- 독일 연방 소비자정책 장관회의는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을 곧 마련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보호할 계획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19/109644/index.html)

행정 · 재정

10. '골목길' 전자 데이터 시스템 구축 (북경)

○ 북경市는 가장 길거나 오래된 모든 '후통'(좁은 골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임.

- 후통은 서민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구역으로, 최근 도심지의 대규모 개발로 대부분 파괴됐으나 일부는 시정부가 예산을 들여 보존해 관광지화하는 곳도 있음.

- 후통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주로 당안관리소(문서관리소)가 소장하고 있는 100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현재의 후통뿐 아니라 이미 사라진 옛 후통도 모두 포함할 예정임.

·옛 후통은 신문, 잡지, 사진 등 문헌에서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실질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최종 확정함.

·2001년부터 市 당안관리소는 150개에 걸친 후통 정보를 수집함.

(newspaper.bjd.com.cn:81/bjrb/html/2008-09/22/content_70504.htm)

한줄 뉴스

<런던>

- 2008년 9월 패션주간 개최해 창조산업으로서의 패션 산업과 패션 종사자의 건강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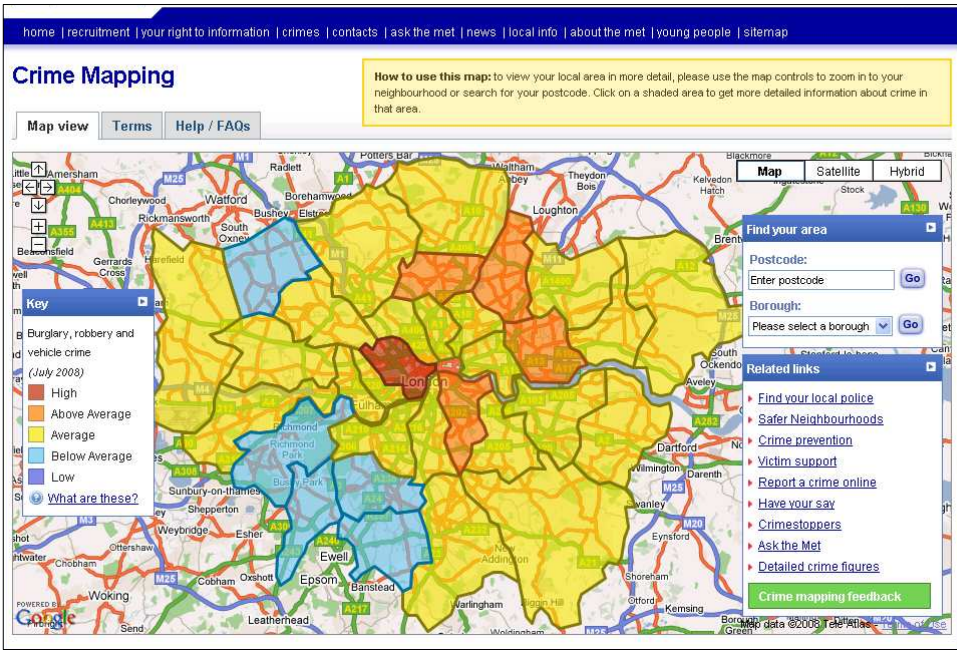
- 캠든區, 빅토리아 양식의 공공 임대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개조한 모델하우스 전시

방재 · 안전

11. 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 범죄지도 작성 (런던)

○ 런던市는 시민이 지역의 범죄현황을 알 수 있도록 런던경찰국(London Metropolitan Police)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Web Crime Mapping)를 2008년 9월 개설함.

- 인터넷 범죄지도를 통해 거주지역의 범죄 수준을 알 수 있고, 범죄 예방과 안전대책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거주지역의 범죄와 거주지 내의 치안 정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있음.
- 인터넷 범죄지도는 ‘안전한 이웃팀’(Safer Neighbourhoods Team) 홈페이지와도 연결돼 있어, 다른 지역의 범죄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음.



인터넷 범죄지도(maps.met.police.uk)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656)

12. 지하공간 침수 대책 가이드라인 수립 (도쿄)

- 도쿄都는 2005년 9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이후 2007년 ‘호우 대책 기본 방침’을 마련함. 최근에는 침수 피해에 가장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 공간 침수 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지하공간은 침수 정도가 낮아도 출입구를 넘어서면 단번에 유입돼 단시간에 수위가 상승하는 등 지상과는 달리 위험성이 높음. 이 때문에 지하공간 관리자나 건축주, 사용자에게 지역의 침수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음.
 -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책은, 지상으로부터의 침수 유입을 늦추거나 경감하는 등의 하드 대책과 평소 수해 정보를 수집해 방재 대책을 확립하고 수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소프트 대책이 필요함.
 - 공조 대책 분야인 하천 정비나 하수도 정비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 재해 방지대책을 추진해야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9100.htm)

도 시 환 경

13. 녹색지붕 설치하면 세금감면 혜택 (뉴욕)

- 뉴욕市는 빌딩 옥상에 그린루프(녹색지붕)를 만들거나 빗물의 흡수를 도와주도록 자갈을 설치하는 소유주나 개발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함.
 - 이미 유럽은 수십 년 전부터 그린루프를 설치해 왔고 시카고市와 시애틀市도 최근 동참함. 뉴욕市는 그동안 비용편익 문제로 그린루프 설치 동참에 소극적이었음.

·그린루프 설치비용이 1평방피트당 30달러(약 3만 4000원)가 드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남.

- 그린루프가 설치된 곳은, 빗물의 약 70%를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홍수에도 하수도가 넘치지 않음.

·사막기후에서 잘 자라는 세덤(sedum)이 이산화탄소 감소와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식물이 햇빛을 흡수할 뿐 아니라 잎을 통한 수증기 증발로 여름 한낮의 빌딩의 온도를 일반 옥상에 비해 30%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 결과적으로 에어컨 사용량도 줄일 수 있게 돼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음.



(www.nytimes.com/2008/08/28/nyregion/28roof.html?_r=1&emc=eta1&oref=slogin)

한줄 뉴스

- 뉴욕市, 市 홈페이지에서 각종 문화시설과 행사를 18개 카테고리로 나눠 자세히 정보 제공
- 로스앤젤레스市, 도심 언덕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염소 떼 활용
- 도쿄都, 다마 강 하천부지 50km를 운동 장소와 산책 코스로 정비

14. 태양열 전지판 설치하면 저리로 비용 용자 (캘리포니아주 버클리市)

○ 버클리市는 주택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집주인에게 저리로 비용을 용자 해주기로 함.

- 주택 소유자가 태양열 전지판을 구입·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약 2만 2000달러(약 25,146만원)를 市에서 먼저 지불하고, 주택 소유자는 20년 동안 市에 돈을 갚게 됨.

·주택 소유자는 시중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매달 전기세를 내는 것보다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함.

- 市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8/09/15/BAKB12T5G4.DTL)

15. 환경 살리기 자원봉사는 시청 공무원부터 (런던)

○ 런던市는 市 공무원의 자발적인 환경봉사 활동을 市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 市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환경 살리기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 살리기에 시민이 나설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임.

- 市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쉽게 환경단체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어도 1년에 하루는 현장에서 열리는 환경 살리기 캠페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기로 함.

·특히 시장과 고위직 市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적극 나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해 주목을 끌고 있음.

- 현재 런던교통공사와 개발청을 제외한 런던市 공무원은 1년 중 최대 3일까지 자원봉사 참여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234)

16. 안정된 하수도 사업 통해 수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2006년 12월 ‘하수도 사업 경영 연구회’를 설치해 하수도 사업의 기본 방침, 사업 전개 등에 대한 심의를 9회에 걸쳐 실시해 왔음. 이를 바탕으로 ‘물·자원 순환에 공헌과 안정된 하수도 사업의 운영’이라는 부제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게릴라 호우와 같은 국소적 집중 호우에 대한 대응과 지구 온난화 대책, 방대한 하수도시설의 노후화 대책 등 하수도 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해, 빗물 및 오수 처리뿐 아니라 빗물을 활용한 오수 재생·재활용 수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 보고서에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생활기반 확립, 빗물 침투기능 강화를 통한 건전한 물 순환과 자원의 유효 활용이 제언됨.
-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소화가스 등을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는 등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의 공헌이 하수도 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임.

(www.city.yokohama.jp/me/kankyoku/kisha/h20/080916-1.html)

한줄 뉴스

- 상파울루市, 자전거 이용 장려 위해 지하철에 자전거 탑승 허용
- 리우데자네이루市, 문화활동이 목적일 경우 市 소유 건물 사용하도록 허가

17. 전기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08년 9월 전기 자동차 운행 프로젝트인 'e-mobility Berlin'을 공식적으로 시작함.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파일럿 프로젝트로, 베를린에 100대의 전기 자동차와 500곳의 태양전지 충전소가 시험 가동·운영됨.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자동차의 추진 테크닉, 배터리 테크닉, 충전소 시설을 테스트하는 것임. 그 외에 전기 자동차 이용방식과 전기 자동차의 수용성, 일상 용도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함.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자동차 모델 생산의 방향을 잡고, 2010년에 첫 번째 전기 자동차 시리즈를 시판할 예정임.

- 전기충전소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경우 6시간, 50% 충전할 경우 2시간의 자동차 운행이 가능함.

- 독일 연방 수상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개발, 재료 연구, 보안 연구, 필요한 전기부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05/108501/index.html)

(www.heise.de/autos/E-Mobility-Berlin-Elektroauto-Pilotprojekt-gestartet--/artikel/s/6409)

>>> 전문가 검토의견

- 선진국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의 부담을 이겨내려는 수단으로 활용함.

·베를린市의 e-mobility Berlin 프로젝트는, 21세기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인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그린 카' 사업을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런던市에서도 ‘주스 포인트’(Juice Point)라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 한국형 전기 자동차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도 전기 자동차 분야는 최우선 R&D 투자 부문임. 하지만 관련 안전조치 표준사양 등 법규 미비로 도로를 주행할 수 없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도 향후 그린 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학술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므로 베를린 추진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경철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gckim@sdi.re.kr)

18. ‘쓰레기봉투 북극곰’,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에 앞장서 (뉴욕)

○ 뉴욕市 광고협회(AD Council)와 환경보존 기금 위원회(Environmental Defense Fund)는 ‘(자가용을) 몰지 말고 (대중교통을) 타자’(Ride, Don’t Drive)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지하철 환기구에서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풍선처럼 팽창되는 북극곰의 모습을 TV에 방영하고 있음.

- 시각예술학교(School of Visual Arts) 학생이자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거리 예술가인 조슈아 알렌 해리스가 쓰레기봉투로 북극곰을 만들어 맨해튼 21번가와 6번 애비뉴의 지하철역에 설치함.

·이 북극곰은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 때는 쪼그라들어 단순한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지하철이 지나가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부풀어 올라 대중교통 이용과 환경보존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함.

- 미국 정부와 대중교통 협회(The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2008년 1분기 동안 대중교통 이용 사례가 8억 8000만 건 이상으로 증가함.

- 일주일에 10마일씩 자가용 이용을 줄이면, 800만 가구가 전기를 사용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과 같음.



팽창된 '쓰레기봉투 복금곰' 모습

(ny.metro.us/metro/local/article/Viral_video_is_now_a_marketing_device/13611.html)

19.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상하이)

- 상하이市는 주요 지하철역과 맞닿는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 및 신설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할 계획임. 우선 홍코우(虹口區) 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선정, 개발해 반응이 좋으면 전역에 적용할 방침임.

- 주요 내용은 지하철 역사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잇는 길, 주요 도로 사이를 관통하는 샛길을 신설하는 것임.

·현재 상하이市에는 1000만 대 이상의 자전거가 운행되며, 이 중 60% 이상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상하이市는 지하철 3개 노선이 관통하는 홍코우 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주요 대중교통을 연계해,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 제공할 계획임.

(www.news365.com.cn/wxpd/sh/hk/200809/t20080902_2012360.htm)

20. 무단횡단 단속하는 24시간 ‘전자 감시경찰’ 등장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9월 12일부터 푸둥신취(浦東新區)의 자린루(佳林路)와 진가오루(金高路) 교차로에 전자 감시장치를 설치함.
 - 전자 감시장치는 교통위반 차량이나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게 ‘교통규범을 지키세요’라고 경고하고 위반행위를 촬영함.
 - 경찰은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이 영상을 처벌 근거로 활용하고, 처벌내용을 개인신상 파일에 기록할 예정임.
 - 24시간 감시체계의 이 시스템은 푸둥신취 교통 관련 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신기술로, 앞으로 인근지역 6개 시범도로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 교통당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자 감시장치 설치 후 3일간 신호무시 무단횡단자는 기존 60여 명에서 25명 이하로 현저히 줄어듦.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9/12/content_14382245.htm)

도시계획·주택

21. ‘그린 극장’ 실행계획 발표 (런던)

- 런던市는 ‘그린극장: 기후변화를 위한 조치’(Green Theatre: Taking Action on Climate Change) 계획을 발표함.
 - 그린극장 계획은 극장산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룸.
 - 이 계획은 런던의 극장산업이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약 9000호의 주택이 배출하는 양에 해당함.

- 그린극장 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천한다면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60%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함.
- 이는 런던市的 5000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임.
-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극장 관련 산업종사자에게 ‘그린 스태프’(Green Staff)를 지정하고 계약과정에서 그린정책을 넣도록 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741)

22.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프로젝트로 수상 (베를린)

○ 베를린市는 ‘도시의 엄마들’이라는 사회 프로젝트로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2008’에서 수상함.

- ‘도시의 엄마들’은 교육과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된 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베를린市가 시행한 프로젝트임.
- 주요 내용은 이민자 가족의 여성에게 언어, 직업, 건강, 법적 권리, 교육을 위한 특별 연수코스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후원하는 것임.
- 메트로폴리스는 1985년 설립된 세계 대도시의 네트워크로, 현재 100개의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가입 도시 간의 교류와 협업이 활발함.
- 3년마다 열리는 세계 메트로폴리스 대회에서 각 도시의 3년간 추진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프로젝트를 기획한 도시에 상을 줌.
- 수상자 선정 기준은 환경, 교육, 건강, 주택건설, 공공교통, 일자리 창안 등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09/nachricht3185.html)